

“12·3 내란은 윤 대통령 권력 확대 위한 친위 쿠데타”

전문가 시각으로 살펴본 '12·3 내란사태와 한국 사회'

조대 사회과학연구소 전문가 좌담회 “위기 벗어나려는 전략적 선택” 탄핵 집회 공간 ‘광장’ 중요성 제기 軍 정치 중립 위한 문화 검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탄핵 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조선대학교는 20일 오후 학교 본관 3층 아름마루에서 '12·3 내란 사태와 한국 사회'를 주제로 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번 좌담회에서는 12·3 내란 사태가 보여준 한국 사회의 여러 모습을 관찰하며 진단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3 내란은 윤 대통령의 권력 확대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며 탄핵 정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윤석열의 쿠데타와 K-민주주의의 미래'란 주제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원인은 그의 개인적 특성보다 명태군의 폭로 이후 직면하

게 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명분 없는 쿠데타는 실패했다"며 "내란으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가 붕괴했을 뿐만 아니라 공고화된 민주화 국가의 '연성권력' 하락, 달리 환율 급등, 증시 폭락,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등 경제적 불안정이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쿠데타를 포함한 민주주의 붕괴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탄핵 집회에서 광화문과 여의도 등 상징적 정치 공간인 광장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하상복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한국의 여론을 담아낼 만한 공간이 없었으나 지난 2009년 광화문에 광화문 광장이 조성된 이후 시민들이 정치적 주장과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적 장소로 이용돼 왔다"며 "광장은 고립적이거나 폐쇄적인 곳이 아닌 새로운 빛의 주체들의 정치적 운동 형태들이 실현되고 재생산되는 무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군의 정훈교



20일 조선대학교 본관 3층 아름마루에서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 주최로 '12·3 내란사태와 한국 사회' 좌담회가 개최됐다.

육과 군사문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5·18민주화운동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온 노영기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교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12·3계엄과 5·17계엄을 비교해 본 결과 북한을 핑계 삼은 대통령의 담화가 비슷하고 포고령(10호와 1호)도 상당히 유사한 것을 발견했다"며 "윤 대통령이 단순하게 국회 결의안 통과 저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같은 초헌법적 비상기구도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이어 "12·3 내란 공모 세력들이 사전에 나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수부대원들의 느긋한 행동 등 미심쩍은 구석이 많았다"면서 "이는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과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이 영화, 책 등의 작품으로 많이 알려진 만6㎝ 군인들이 쉽사리 움직이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동원의 불가능함을 위해 군의 정훈교육과 군사문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 계엄법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대안 마

련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음악평론가인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는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케이팝 팬들의 활동을 조명했다.

최 교수는 "강남역 살인사건, '다만세(다시만남세상)' 폐창의 기원, 박근혜 탄핵의 도화선이 됐던 2016년 이래, 여성의 목소리는 한국 사회 전반에서 소수자와 억압받는 이들을 대변하게 됐다. 그렇게 키워진 여성의 목소리가 이번 탄핵 집회의 선장과 후장에서 모두 두드러졌다"며 "이번 탄핵 집회에서 서로 다른 빛깔로 흔들어진 '응원봉'은 우리 사회의 상처받은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큰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음악의 힘을 통해 서로 다른 개인과 팬덤 집단들을 가로질러 연결하고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 연대가 이어진 것이다"고 풀이했다.

이어 "이번 국회 앞 탄핵 집회의 주제곡이었던 '다만세'는 '여성의 목소리'를 재현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세대론적으로 1990년대생의 목소리를 재현하기도 했다"며 "이들에 대한 정치인류학적 탐구가 요청되는 동시에, 무한경쟁, 불평등, 불공정의 사회를 이들에게 물려준 '민주화 세대'의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정성아 기자

설 연휴 기간, 호남선 KTX 5714석 추가 공급

무궁화호 32회 추가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분부가 설 명절이 시작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를 '설 특별 수송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수송대책을 시행한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설 특별 수송기간 동안 호남고속선 KTX는 전 기간 운행 일정을 주말로 변경해 좌석을 5714석 추가 공급하며 호남선 무궁화호 열차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각각 4회씩 총 32회를 추가 운행한다.

또 특별 수송기간에 대비해 철도 운영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탈선·레일절손 등과 같은 철도사고 우려 요인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안전·영업·차량·시설·전기 분야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전 안전점검도 완료했다.

이번 특별 수송기간 동안 철도 수요에 대응하고 귀성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사전 준비를 마친 코레일은 철도 이용객의 불편 사항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 수송대책본부를 구성, 비상 근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레일 광주본부 관계자는 "철도를 이용하는 귀성객 모두가 즐겁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도사고 및 장애 예방 등 열차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고려인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등이 20일 광산구 고려인마을 인근 다모아어린이공원에서 '고려인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 준공기념식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고려인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고려인마을이 가진 역사·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마을 곳곳의 공간을 개선하고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양배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숯,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업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태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보증,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